B21

신낭종 천자후 MINOCYCLINE 주입의 치료성적 고찰

오 순식, 정 경우, 권 헌영, 윤 진한　　부산 동아의대 비뇨기과

신낭종의 비관혈적 치료법으로 신낭종의 천자후 여러종류의 경화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무수알콜을 선호해 왔다. 그러나 무수알콜은 낭종내 주입후 다시 배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Minocycline은 주입후 배액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저자들은 1990년 6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3개월 이상 추적 관찰된 단순 신낭종 46례(단발성 43례, 다발성 2례, 다방성 1례), 다낭종신 5례에서 신낭종 천자후 내용물을 제거하고 Minocycline hydrochloride 200mg을 2ml로 하여 주입하였다. 직경은 2.2~12.0cm로 평균 4.72cm였고 추적기간은 3~12개월로 평균 5.8개월이었다. 시술회수는 1회 시술 47례, 2회 시술 4례로 이들중 다방성 신낭종, 다낭종신이 각각 1례였다. 최종시술 3개월후 20례(39%)에서 낭종이 소실되었고, 1례(2%)에서 직경이 90%이상, 19례(37%)에서 직경이 50%이상 감소하였으며, 총 40례(78%)에서 직경이 50%이상 감소되었다. 시술후 1례에서 피부에 출혈반이 나타났고 7례에서 동통을 호소하였으나 3례(3.8%)에서만 진통제의 투여가 필요했다.

이상의 성적으로 신낭종 치료에 Minocycline주입은 단순 신낭종에서 치료 효과가 양호하였고 처치가 용이할 뿐 아니라 합병증이 적었다.

B22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서 지속성 장투석의 효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황일용, 김건호, 정판준, 함종렬, 심대석

본 연구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비흡수성 만니톨 용액을 경구 복용시켜 장투석의 효과를 관찰하였다.

27명의 만성 신부전증 대상환자는 평균 6.48 ± 3.67 ml/min 크레아티닌 청소율을 보였고, 2개월 내지 6개월 동안 비흡수성 만니톨 용액을 200ml 또는 250 ml씩 하루 4회 경구 복용하였다.

장투석전과 2개월 동안의 장투석후 평균 혈중 질소 농도, 크레아티닌, 인과 요산은 각각 84.40 ± 32.68, 10.97 ± 3.64, 6.22 ± 1.79, 9.04 ± 3.14, mg/dl에서 62.95 ± 25.14, 9.59 ± 3.40, 5.17 ± 1.67, 8.00 ± 2.66 mg/dl 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0.05$). 그러나, 2개월후 장투석을 자의적으로 중단한 9명에서 2주뒤의 평균 혈중 질소 농도, 크레아티닌, 인과 요산은 각각 107.33 ± 38.75, 12.63 ± 3.30, 6.78 ± 4.23, 8.93 ± 5.69 mg/dl으로 장투석의 경우보다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05$). 몸무게, 혈중 칼시움, 혈중 소디움, 혈중 칼륨, 혈중 염소, 적혈구,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리트 등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P>0.05$). 칼럼 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Gel Chromatography)상 분자량 1500 daltons 이하의 3정점들은 장투석전보다 장투석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0.05$)

이상의 결과로,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 비흡수성 만니톨 용액의 장투석은 요독물질을 제거시키고, 요독증상을 호전시키므로 만성 신부전증의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사용 될 수 있다.